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이사야 7:14
2025년 12월 7일 오전 11시

약속은 성취된다: 임마누엘

<주여 도우소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여러 차례 치루었습니다. 첫째는 남왕국의 두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왕국의 군대는 40 만명, 북왕국의 군대는 80 만명으로 북왕국이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전쟁의 결과는 남왕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만해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대하 13:14).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대하 13:15). 그래서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남왕국 유다의 9 대 왕인 아마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12 대 왕인 요아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 때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고 마음이 교만해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남유다의 패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 보물이 약탈되며, 아마샤 왕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 왕조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외세를 끌어들여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사 7:2).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고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에브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남유다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휩쓸린 수풀처럼 흔들렸습니다.

1. 흔들리는 아하스와 하나님의 명령: “가만히 서라”

특히 아하스 왕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목표가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삽자 하였으나”(5-6 절). 다브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브엘이라는 이름이 아람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다메섹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아람계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4 절). 하나님께서는 르신 왕과 베가 왕을 두려워하며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아하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출 14:13).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줄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정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후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조를 폐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사 7:7). 오히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8 절). 헌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앗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하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11 절).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높은 데 하늘과 깊은 데 음부의 어떤 징조든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요구한다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는 징조도 보여주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징조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아하스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12 절).

그러면서 자신을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7-10).

2. 아하스의 불신과 하나님의 징조: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허나 믿음의 확신을 위해 구하는 징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이 구한 징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삿 6:36-37).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하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삿 6:38).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앗수르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로써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사 7:12). 아하스는 백성들을 괴롭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세운 언약 때문에 다윗 왕조와 아하스 왕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은 성취된다: 임마누엘(사 7:14)

하리라”(13 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징조를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징조의 내용은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13 절에 나오는 처녀가 동정녀가 아닌 그냥 젊은 여인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13 절의 ‘처녀’에 사용된 히브리어 알마(**גָּבְרִיתָא**)는 혼인적령기의 젊은 여성으로 동정녀(virgin)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구약 성경에 알마가 7 번 사용되었는데, 단 한 번도 처녀가 아닌 여성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 인역 성경에서 ‘알마’를 동정녀인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닌 젊은 여인이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지 초자연적인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하여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 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16 절). 이러한 예언은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사 8:1). 마헬살랄하스바스는 ‘노략품을 재빨리, 전리품을 챙싸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사 8:4). 실제로 마헬살랄하스가 태어나고 2 년이 못되어 다메섹이 앗수르 사람들에게 정복 당했습니다. 그리고 10 년 후에 사마리아가 앗수르 사람들에게 정복 당했습니다. 마헬살랄하스가 12 살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탈 줄 아는 나이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내를 통한 예언의 성취는 임마누엘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왕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3). 헌데 중요한 것은 아직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 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 1:34).

3.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은 엘리사벳도 잉태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눅 1:36).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이에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눅 1:38).

문제는 약혼자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잉태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때, 요셉은 몹시 혼란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일러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마 1:20).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임마누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2-23).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징조는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뿐 아니라 떠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AI의 등장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